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에 대한 토론

김범철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청동기시대 생계에 대한 연구는 일차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농경 이외의 분야에서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임은 비록 그간 직접 그러한 주제를 다루어보지 않았던 토론자조차도 쉽게 짐작이 간다. 우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분야를 다루어온 발표자에게 同途를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몇 가지 비판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소 아쉽기는 하다. 발표의 내용이 실증보다는 대체로 가설적 입장, 즉, 발표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세세한 사실의 확인 보다는 큰 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토론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사실, 수렵과 채집에 관한 한, 최근 들어 과거에는 없었던 혹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임으로 현재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축적될 자료로부터 타당한 설명을 이끌어 낼, 개연적인 가설을 수립하고 그 전제를 검토해 갈 때이다. 따라서 토론자가 다음에 할 지적은 발표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업에 토론자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되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순수한 바람에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 과연 동물단백질의 섭취가 수렵으로만 달성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작물재배농경과 병행하는 것이 가축 사육이다. 양자의 시작이 엄밀하게 동시인지 혹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 인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농업경제 사회가 가축사육을 병행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삼국시대까지도 수렵에 의해 획득된 사슴과 멧돼지가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경로이고 식료로 사용할 사육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자료가 뒷받침되는 않아 보인다(이준정 2006). 그러한 의견은 패총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패총은 식량 획득의 장소인 동시에 쓰레기더미인데 청동기시대 대형취락과는 인접해 있지 않은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축이란 그야말로 생활근거지에서 기르는 동물이다. 따라서 도축 또한 생활근거지인 취락의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패총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 자료는 식료로서의 가축을 사육했다는 것을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가축 사육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연구가 있는 수렵·채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발표자나 학회의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동물단백질 획득의 주요경로가 수렵·채집 만이었고 사육의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 짓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해본 지적이다. 발표자의 반론이나 견해를 듣고 싶다.

- 발표자는 “청동기시대에 농경만으로 생계를 해결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고 있다. 현재에도 생계는 수렵·어로·채집의 비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그 비율이 문제인데, 발표자의 뉘앙스는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계에서 농경이 차지하지 비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맞는지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싶다. 그런데 그 문제는 차후의 검증 혹은 논증해보아야 부분이지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표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예도 전혀 발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발표자가 주를 통해 인용하고 있는 두 연구는 단지 발굴된 논 면적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일 뿐, 사실 청동기시대 논(비록 무논이 아닐지라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경작되었는지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두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청동기시대 잡곡 농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경의 산물이 턱 없이 부족해서 대량의 동물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반론이나 견해를 듣고 싶다.

- ‘생계’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 그 사전적 정의는 ‘생존을 위한 영양학의 최소 요구치를 달성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늘 참석자의 대부분이 이야기로만 들어 알고 있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자. 그다지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시절이었는데, ‘보리고개’니, ‘초근목피’니 하는 등의 말을 연상케 하는 그 시절의 춘궁기는 그 중에서도 더욱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그야말로 제사 때나 맛보던 것이라고 묘사된다. 흔히 추억하기를 개구리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는 정도로 성장기(청)소년들이 단백질을 보충했을 수는 있다. 어쨌든 현재에 비하면, 매우 극미한 양의 동물성 단백질이 섭취되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쌀에도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나 지방·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경에 의한 산물이 충분하다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 동물유존체의 분석에 따르면 개는 신석

기 이후, 소와 말은 청동기시대 후기(점토대토기문화기)부터 사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총에서의 출토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취락에서의 비율이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물성 단백질원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이 듣고 싶다.

- 발표자는 타원형 구덩이를 멧돼지 포획을 위한 함정으로, 장타원형 구덩이를 사슴 사냥을 위한 함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표적인 타원형 함정의 예가 되고 있는 천전리유적의 경우, 발표자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생계수렵이 아닌 구제수렵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점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발표자가 별고(김도현·권지영 2007: 26)에서 “구제수렵은 경작지를 망치는 짐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밝히고 있는 구제수렵의 목적이 천전리유적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제한된 범위만이 발굴되어 전모가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발굴결과, (저장)수혈유구군 굴립주유구군이 동(북)쪽 구릉을 면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분묘군이 이들 유구군의 서(남)쪽에 배치되어있으며, 발굴범위의 서(북)쪽은 경작이 용이한 넓은 저지가 펼쳐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정유구는 동(북)쪽 사면에 집중 배치되고, 북쪽-반구상 경작유구가 있는 쪽-으로는 더 뺏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치상으로 보았을 때, 함정의 축조는 대략 경작농작물의 방어보다는 저장된 농작물이나 인명에 대한 방어가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방어가 우선이고 식료로서의 멧돼지 포획은 부수적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부수적이고 산발적인 경우를 적극적으로 동물단백질 섭취의 계획량 편입시키는 것이 당연할 지도 의문이다. 호랑이 등 최상위 포식자가 없는 관계로 최근 멧돼지가 번성하고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총 혹은 덫을 이용한 멧돼지 사살은 오늘날에는 매우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사냥꾼이 멧돼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상례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발표자는 신석기시대 이후, 동식물상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다. 한반도 전체의 차원에서, 동식물상의 종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면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정착농경생활에 기반한 청동기시대인들이 느끼는 식생과 동물상을 포함한 경관은 신석기시대와는 전적으로 달랐을 것이다. 정착농경생활이 심화되면서, 특히 수도작이 확대되어가면서 청동기시대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관의 공간적 범위는 주거지역 주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 주변은 신석기시대와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농업경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현상은 필수적이다. 숲으로 덮였을 계곡이나 저지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된다. 특히, 화전농

경의 경우, 더욱 극심할 것이다. 삼림지역의 축소는 식생의 변화는 물론이고, 동물의 수 감소나 동물상 구성비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발표자의 전제는 다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발표자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정에서 수렵양상이 함정수렵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한 이유를 농경에서 찾고 있다. 함정수렵의 장점은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절감된 노동력은 다시 농경에 투입된다는 것이 발표자의 주장이다. 특히, 별고(김도현·권지영 2007)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경의 확대와 ‘구제수렵’의 증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척 개연성이 높은 추정이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 발표자는 수렵은 주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수렵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토론문의 두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피력하였던 전제, 농경에 의한 식료 공급을 상당히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수렵(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유일한 경로)이라는 뉘앙스와는 다소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토론자가 비약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발표자는 저장양상의 변화를 들어 식물자료 채집의 양상변화를 들고 있다. 그런데 저장양상의 변화는 발표자가 발표문 전체에서 대비 시키고 있는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농경의 집약화·계층의 발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경을 하면서 확충된 인력이 더 많은 저장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차가 있어 보인다. 이점에 대해 토론자의 오해가 있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환과정에서 저장이 늘어나고 그것이 공공화 혹은 전문화되었다는 점은 잠정적이거나 인정한다. 토론자도 비록 다른 맥락이지만 이와 비슷한 의견을 몇 곳에서 피력한 바도 있다. 하지만 저장량의 폭발적 증가를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장석의 분석(김장석 2008)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밀한 분석이 따르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의 단순한 의문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전기 주거지 내의 저장공간이라고 표현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체로 야트막한 소형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는 곧바로 저장의 공간이 아니라, 토기를 안치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바, 전체 저장 체적을 복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복수의 노지가 있는 전기 주거지를 노지의 위치에 따라 내부 공간을 분할 해 보았을 때, 상당한 공간이 노지가 없는 상태로 있다.

흔히 노지 주변이 핵가족의 공간이고 (세)장방형 주거지는 확대가족의 가옥이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공간은 저장이나 보관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종종 언급하는 바이다. 이 공간은 대략 한 핵가족에게 할애된 만큼은 된다. 제법 넓은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주거지 중앙에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토기를 안치할 구덩이가 없더라도 저장공간에서 제외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 공간에 토기를 촘촘하게 놓으면, 깊이 1m가 넘는 저장공보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송국리형 유적들의 경우,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저장공에 비해 얇은 탓에 삭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실제로 전체 주거지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의 주거지만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반면, 저장공은 약간의 체적 손실은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분석에 포함되게 된다. 송국리형 주거지가 대체로 구릉사면에 입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완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주거지의 한쪽 면이 10cm만 삭평되어도 분석에서 제외되지만, 1m 깊이의 저장공은 10cm 삭평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적의 10%만이 손실될 뿐 나머지 90%는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완형주거지 면적 대 저장공 체적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引用文獻

- 김도헌·권지영, 2007, 「선사시대 수렵함정의 조사연구법 시론」, 『야외고고학』 2, pp. 2-33.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pp. 4-39.